

임대 40%시 가계부채 최대 50조 축소

(공공·기업)

한은 전망... 현재 19%로 선진국 절반 수준... 구조개선으로 가계자산 다양화 유도해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공공·기업 임대 비중이 현재보다 약 20% 오를 경우 가계부채 총량은 최대 50조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19%인 우리나라의 공공·기업 임대 비중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 평균인 40% 수준까지 오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현 수준보다 30~50조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금융 규제완화,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자가 구입 확대, 전월세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거주형태별 구성을 보면 임차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말 기준 전체 가구(1877만가구) 중 임차거주율은 46.4%다.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는 개인임대(미등록)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9%를 공공·기업임대가 메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차거주율과 총임대주택 중 개인 공급 비중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요국의 임차거주율 평균과 총임대주택 중 개인 공급 비중은 각각 33.3%와 60%다. 우리나라보다 약 13%, 21%씩 낮다.

한은은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개인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부채에 양적·질적 영향을 미치



넷플릭스 미디어데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리드 헤이스티스(가운데) 넷플릭스 CEO가 한국 진출 소감을 전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다.

고 있다고 판단했다. 즉 개인의 임대사업을 위한 차입은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 임대가계의 레버리지 투자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임대 가구의 주택매입을 위한 금융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대가구 중 순수 임대목적 성격이 강한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다주택보유)의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2012년 111조2000억원에서 2015년 143

조4000억원으로 29.0%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자가임대·임차거주 가구의 금융부채는 71조3000억원에서 58조1000억원으로 18.5% 줄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 중 주택대 비중을 보면 다주택을 보유한 자가임대·자가거주가구는 73.5%(105조5000억원)로 자가임대·임차거주가구의 55.2%(32조1000억원) 보다 높다.

이는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대에 더 많이 의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시장에서 공공·기업 부문의 역할이 주요국에 비해 부진하다"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

면서 임대수익을 위한 가계의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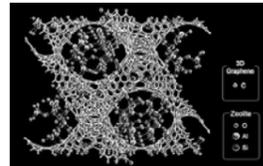
이어 "중장기적으로 공공·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개별 가계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 개선은 실물자산 위주인 현재의 가계자산 구성 다양화 유도,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및 임대관련 주거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연관산업 발전의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수 기자

그래핀, 3차원으로 만든다

고성능 배터리 음극재·멤브레인 등 다용도 활용 가능

'꿈의 나노물질'로 불리는 평면 구조의 그래핀(Graphene)을 3차원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3차원 그래핀은 완벽한 입체 결정구조로 안정성과 물성이 뛰어나 고성능 배터리 음극재와 고효율 여과막(멤브레인)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는데 이때 이 온도차에 의해 기공위주의 탄소결정이 남는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유희 단장(KAIST 화학과 교수) 연구진이 2차원의 그래핀을 3차원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6각형 형태로 배열된 흑연의 한 층을 말한다. 전기 전도성과 열전도도가 매우 높고 빛 투과율이 뛰어나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2차원 구조로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나 능력치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구진은 직경 1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미세 기공이 많은 음극성 광물인 제올라이트를 주형으로 사용해 3차원 그래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제올라이트 주형의 미세기공에 탄화능 양이온을 촉매로 주입하면 기공 안과 밖의 연소 온도가 달라

탄소 증착을 유도해 탄소 결정 구조를 구형한 뒤 산용액으로 제올라이트 주형을 녹여 3차원 그래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연구진은 나노물질의 X선 회절 패턴을 분석하는 X선 회절 분석법'으로 3차원 그래핀의 결정구조를 확인했다.

또 이를 그래핀 전지의 음극재로 만들어 시험한 결과 약 100mAh의 정전용량이 약 300mAh로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그래핀 3차원 합성의 주재료인 제올라이트가 저렴하고 이를 제거하는 공정도 단순히 대량 생산이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김경수 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연구위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인진수 기자

한경연 "노동·기업·금융 규제 10% 완화시 경제성장률 1.5%p ↑"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다음 년도 경제성장률이 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규제 수준을 10% 완화한다는 것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점을 높인다는 의미다. 이는 프레이저재단이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를 바탕으로 연구됐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노동·기업·금융 규제 수준이 2000년 6.26점

에서 2013년 6.86점으로 14년 간 0.6점 상승했다"며 "그간 추세를 볼 때 규제 수준을 한 단위 올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행정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이중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 위원회의 국회 참석과 보고의무를 부과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가계, 100만원 벌어 40만원 빚 갚아

1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45.6% '사상 최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경기부진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주춤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통계 기준) 비율은 145.6%로 지난해 9월말(140.7%)

에 비해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10년의 연평균 상승폭인 3.1%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올 1분기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1% 증가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의 2.8배에 달하는 셈이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6.9%로 전년 동기(37.7%) 대비 0.8%

포인트 하락했다. 소득 100만원 중 약 40만원이 빚 갚는데 썼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세가 둔화했음에도 부채상환지출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비용 지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가계부채는 3월말 기준 1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은 2014년 3분기부터 꾸준히 커지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집단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늘어난 여파로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편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44.8%로 지난해 6월말(44.0%)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 금융부채의 규모가 9.8% 커질 동안 금융자산은 9.6%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을 보면, 현금·예금이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연금(31.1%)과 주식(19.4%)이 뒤를 이었다. /정영수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행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